

제10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비대면 진행

# 배경음악에 맞춰 그대 환상의 묘기를 보여줘라

제10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JL매직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는 매년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이 주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는 대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미술이 널리 확산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창의적 영감을 불러넣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미술은 청소년들의 창의와 예술적 영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취미이다"며 "이번 경연대회가 우리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고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무대가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출발점이 돼 더 큰 비상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의 활약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연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숨겨진 재능을 뽐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승곤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갖고 있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진치 한마당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성은(모현초 6)양, 김우혁(우석고 3), 유현우(전주 평화중 3), 김시준(전주예술고 1), 김민수(전주 서중 3), 서민기(드림팩토리)군 등이 무대 위에서 배경음악에 맞춰 환상의 묘기를 보여줬다.

이번 경연의 대상에 유현우군이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유 군은 "개인적으로 이번 경연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더 재능을



대회를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



무대 위에서 열띤 경연을 벌이고 있는 대회 참가자들.

## 김성은·김우혁 등 청소년 미술사들 화려한 무대 장식

## 대상에 유현우 차지 "그동안 절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키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이번 경연에서 대상을 차지한 유현우(왼쪽) 군.



# 대한민국 최고 미인 등극... 춘향선발대회 성료

##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무관중 진행

## 춘향 '진' 신슬기·'선' 김태은

## '미' 김현지·'정' 이채은

## '숙' 신지연·'현' 임예랑 등 선정

## 남원시, 선발자들 시 홍보대사 위촉

남원시 춘향제전위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제90회 춘향선발대회에서 신슬기 양(23, 서울, 서울대 기약과 재학)이 춘향 진으로 뽑혀 대한민국 최고미인으로 등극했다.

선에는 김태은 양(22, 서울, 한양대 무용학과 재학), 미에 김현지 양(22, 경기도 용인, 국민대 도자공예학과 재학), 정에 이채은 양(24, 서울,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졸업), 숙에 신지연 양(24, 캐나다 토론토 대학 재학), 현에 임예랑 양(24, 부산, 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졸업)이 각각 뽑혔으며, 미 김현지 양은 홈페이지 인기투표를 통해 인터넷스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춘향 진에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선에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미에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 정·숙·현에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되고, 별도 인터넷스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올 춘향선발대회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32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으며, 지난달 15일 1~2차 예선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물론, 본선진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전합숙도 취소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울였으며, 본선은 개인별 선증면접을 더욱 강화해 진행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날 선발된 미스춘향 6명을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3년 간 남원시의 다양한 홍보행사 등에 참여해 활동한다.



남원시는 지난 10일 진행된 춘향선발대회에서 춘향 진으로 선발된 신슬기 양을 포함, 수상자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춘향 진 신슬기 "사랑가 편곡 아름다운 광한루원 배경으로 남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파"

피아노가 전공인 진 신슬기 양은 "춘향전의 사랑가를 편곡해 아름다운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춘향과 남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며, 자신의 전공을 살려 언택트 공연도 시도하며 춘향과 남원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춘향선발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신 양은 "민약 자신이 오매불망 풍류를 기다리는 춘향에게 혹시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냐는 질문에 "자신처럼 밝고, 영양제 같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재치있게 답했다.

이어 신 양은 "시상금 받은 것으로 이번 대회출전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함께 남원여행을 하고 싶다"며 "최근 역대급 피해를 입은 남원 수해민들에게도 도움을



미스 춘향 진 신슬기

드릴 수 있는 활동도 전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청춘마이크 전복' 온라인공연, 유튜브로 생중계

## 오늘부터 20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청춘마이크 전복권' 공연을 유튜브(www.youtube.com)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올해 청춘마이크 전복권 참여예술인으로 선정된 총35개 팀, 120여 명이 참여하며, 14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진행된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참여예술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공연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바 있다. 총 70개 영상은 유튜브 '청춘마이크 전복' 전용 채널을 통해 누적 조회수 3만 뷰를 달성하면서, 달라진 공연 예술 환경에 대한 재단과 청년예술인의 대응에 관객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공연은 버스킹 무대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녹화영상이 아닌 라이브 공연으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완주군 고산면의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청춘마이크 전복권 전용무대를 제작, 온라인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전복의 지역적 환경과

계절감을 더욱더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예술인 총 35개 팀이 7일에 걸쳐 음악, 현대무용, 국악, 미술, 아카펠라, 비보잉, 힙합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라이브공연으로 진행하면서 실시간 댓글과 사연 신청을 받아 참여예술인과 관객이 실제 버스킹 공연처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 공연·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대표사업인 '청춘마이크'는 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예술가로서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춘마이크' 유튜브 채널과 문화사업팀(063-230-7441, 063-230-744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온라인 졸업작품패션쇼 영상 공개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학과장 최진희)는 온라인 졸업작품패션쇼 영상을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졸업작품패션쇼는 'We are What We are(우리는 우리입니다.)'라는 주제로 30명의 학생들이 117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무대는 'AFTERNOON LEATHER, 韓: 다움, URBAN COMFORT, FROM199X, 공존, UTOPIA' 총 6개의 콘셉트로 구성, 현대사회 개인의 내면에 숨겨진 개성을 표현하고 각각의 개성이 어우러져 커다란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했다.

첫 번째 콘셉트 'AFTERNOON LEATHER'에서는 무거운 느낌의 가죽에 가벼운 배색을 입혀 가벼운 이미지로 바꿨으며, 두 번째 韓: 다움에서는 아름답지만 일상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한복을 현대식으로 표현했다.

세 번째 'URBAN COMFORT'에서는 그린 컬러를 활용하여 도시의 세련미와 자연의 편안



온라인 졸업작품패션쇼 영상 캡처. (사진=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제공)

함을 동시에 담아냈다.

이어진 네 번째 콘셉트 'FROM199X'는 젊은 에너지가 넘쳤던 1990년대를 의복에 표현하고 '공존'에서는 우주와 지구의 특징을 대비해 무대를 꾸몄다.

마지막 'UTOPIA' 콘셉트에서는 이상향으로 상징되는 골드와 블랙 색상의 조화로 무대를 선보였다. /장은성 기자